

수행예측 판단에서 합치성에 따른 판단편향 효과*

이 종 구[†]
대구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두 속성 정보를 토대로 수행을 예측하는 상황에서 속성 정보의 척도와 반응(판단)척도간의 합치성이 판단에 미치는 편향적 효과를 탐색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그 결과 첫째, 예측 판단에 중요한 두 입력정보 중 반응 척도와 합치되는 정보가 예측판단에 더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요한 속성 정보는 중요하지 않은 속성정보보다 예측 판단에 더 큰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반응척도와 합치되지 않을 경우 그 영향력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요하지 않은 정보가 반응 척도와 합치될 경우 이 정보의 영향력이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연구의 제한점이 논의되었다.

주요어 : 선호뒤바뀜, 시초기준값, 합치성

본 연구는 판단편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중 입력-반응 척도의 동일성, 즉 합치성 효과를 탐색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합치성 효과란 여러 속성 정보(입력)를 토대로 전반적인 판단(반응)을 할 때 판단을 요구한 척도와 일치되는 속성 정보에 증가중(over-weighting)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대기업의 대규모 공채 상황에서 지원자에 대한 전반적인 판단(수행예측 판단)은 여러 예측 변수들이 규준적 절차에 의해 수리적으로 통합된 결과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영업/판매 사원이나 중소기업의 선발과정에서는 여러 예측변수들을 토대로 면접관 또는 인사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채용여부가 결정된다.

인간은 인지적으로 처리용량이 제한되어 있어 적절한 가중치 부여나 여러 속성 정보의 장단점을 감안한 정보의 통합이 어렵다(Goldberg, 1968). 또 판단과정에서 예측변수와 준거와의 관계 이외의 가외변수들(정보제시 순서, 정보의 독특성이나 생생함, 합치성 등)에 의한 영향력이 크고 판단의 일관성도 유지하기 어렵다. 본 연

* 이 논문은 2000학년도 대구대학교 학술 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이 논문을 심사해주시면서 꼼꼼한 수정과 유익한 조언을 아끼지 않은 익명의 세 분 심사위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대구대학교 심리학과, 053-850-6366, gooya@taegu.ac.kr.

구에서는 판단편향을 일으키는 변수들 중 비교적 영향력은 크지만 인간이 인식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진 합치성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인간이 규준적(normative) 의사결정 규칙을 사용하여 판단과 선택을 한다면, 두 대상 중 어느 것이 더 무거운가를 결정하기 위해 천칭을 이용하건 눈금저울을 이용하건 결과가 동일하듯이 동일한 대안들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 선호관계를 표현하더라도 대안간의 선호서열이 같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Slovic과 Lichtenstein (1983), Tversky와 Kahneman(1986)은 인간의 선호가 선호유도 과정에서 구성된다고 주장하고 선호유도 절차들에 따라 선호가 뒤바뀔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들은 선호유도 절차마다 대안이 지닌 속성정보를 부각시키는 정도가 달라 이에 따라 선호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지금까지 가장 많이 비교된 선호유도 절차는 선택과 판단이며 이들간의 선호의 비일관성을 반응양식(response mode) 효과 또는 선호 뒤바뀜(preference reversal) 현상이라고 한다(Slovic, Griffin, & Tversky, 1990; Tversky, Slovic, & Kahneman, 1990). 선택(choice)과 등가판단(marching) 절차간의 선호 비일관성 연구는 Slovic과 Lichtenstein (1971)에 의해 최초로 시도되었다. Tversky, Sarrath와 Slovic(1988)이 선택과 등가 판단 절차를 사용하여 선호 뒤바뀜 현상을 알아보고자 한 실험재료는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에서는 매년 600건의 큰 교통사고가 발생한다. 교통부 장관은 사고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강구하였다. 그는 두 가지 대책을 주로 고려하였는데 각 대책의 시행 후에 기대되는 연간 사고의 수와 비용은 다음과 같다.

선택문제: 당신이라면 둘 중 어느 대책을 채택하겠는가?

대책	기대 사고의 수	시행비용
A	500건	\$ 5500만
B	570건	\$ 1200만

등가판단문제: 두 대책이 동등하게 되도록 괄호 속에 적정 비

율을 쓰시오

대책	기대 사고의 수	시행비용
A	500건	(\$)
B	570건	\$ 1200만

Tversky 등(1988)의 연구 결과 선택문제에서는 피험자의 2/3가 대책 A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가판단절차에서 어느 대안을 선호했느냐는 판단과제에서 괄호 속에 쓴 시행비용과 선택문제에서 괄호의 위치에 제시된 금액(\$5500만)을 비교함으로써 결정한다. 예컨대 위의 등가판단 문제에서 괄호 속에 쓴 금액이 5500만불 미만이면 대안 B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등가판단 과제에서 피험자의 96%가 시행비용을 5500만불 미만으로 나타나 대안 B를 선호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호뒤바뀜 현상은 유인가를 제공하여 동기를 부여해 주어도(Reilly, 1982), 상세한 지시를 해주어도 나타났으며(Lichtenstein & Slovic, 1971), 실제 라스베가스의 도박장에서도 여전히 강력하게 나타났다(Grether & Plott, 1979; Lichtenstein & Slovic, 1971).

그렇다면 선택과 등가판단간의 차이는 무엇이며 이 차이가 의사결정 과정과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에 대한 설명의 원리로 우수성 원리(prominence principle)와 합치성 원리(compatibility principle)를 들 수 있다. 첫째, 우수성 원리에서는 중요한 속성이 두드러지면 그 속성을 증가중(over-weighting) 함으로써 중요한 속성이 두드러진 대안의 평가가 높게 되어 이 대안의 선택 가능성이 증가된다고 본다.

선택을 할 때 모든 속성상에서 다른 대안보다 더 나은 대안이 없을 경우(갈등 상황) 의사결정자는 갈등해결 절차를 찾게 된다. 갈등을 해결하려면 대안이 지닌 속성값들간의 장단점 상쇄(trade-off)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속성값들이 수량적이고 동일한 계량적 단위로 표상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통의 의사결정 상황에서 속성값들은 질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수량적으로 표현되어 있더라도 속성들간의 계량적 단위가 다른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특정 속성값을

다른 속성값과 어떻게 상쇄시킬 것인지 불분명하다. 단위가 다르게 표현된 속성값들의 좋고 나쁨을 완전히 따져보고 이를 정확히 감안하여 전반적인 판단을 하려면 질적인 속성은 수량화해야 하며 모든 속성을 동일한 계량적 단위로 변환한 후 통합해야 하기 때문에 계산적 부담이 매우 클 수 있다. 따라서 상쇄과정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려하기 보다는 휴리스틱을 사용하기가 쉽다.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휴리스틱은 보다 중요한 속성의 값이 다른 대안보다 우수한 대안을 높게 평가하여 그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사전찾기식(lexicographic) 규칙과 유사한 이 절차는 두 가지 매력적인 특징이 있다. 하나는 의사결정자로 하여금 여러 속성값들간의 상쇄과정을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인지적 부담을 줄여준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에게 스스로의 선택을 정당화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는 단순하고 강한 설득적 근거를 제공한다(montgomery, 1989)는 점이다.

둘째, 합치성 원리는 판단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제안되었다(Slovic, Griffin, & Tversky, 1990). 등가판단 문제를 해결할 때 질적으로 표현된 속성값이 있다면 이를 수량적인 값으로 변환시켜야 될 뿐만 아니라 속성값들간에 상호교환 가능한 간격(interval)의 크기와 속성의 상대적 중요도가 고려되어야 한다. 대안에 대한 전반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 여러 속성값들을 동시에 조정하기보다는 하나의 속성값을 시초값으로 설정하고 다른 속성값의 간격과 중요도를 고려하여 시초값을 조정하는 것이 계산의 요소가 적기 때문에 심적부담이 적다. 따라서 속성값 중 하나를 시초값으로, 다른 속성값들을 참고로 시초값을 조정하게 되는데 조정은 대체로 불충분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정에 이용하는 속성값보다는 시초값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핵심문제는 어떤 속성값이 시초값으로 설정되는냐이다. 선호 유도 방법에 따라 입력되는 판단자료(속성값)들에 대한 가중치가 달라지고 또 이중 어떤 값은 시초값으로 선택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효과를 체계적으로 해석하고 예측하기 위해서는 속성들에 대한 가중 및 대안에 대한 평가를 과제 특성과 관련짓는 설명원리를 찾아야 한다. 이러한 설명원리 중의 하나가 합치성 원리이다. 합치성 원리에서는 입력 요소들에 대한 가중치는 이들이 산출요구와 합치되는 정도에 달려

있다고 본다. 예컨대 도박의 속성은 확률과 당첨금인데 도박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등가판단)해 보라고 요구한다면(산출요구), 당첨금은 산출요구와 합치되는 입력요소이고 확률은 불합치되는 요소가 된다. 입력요소와 산출요구간의 불합치 정보를 전반적인 판단에 이용하려면 수량화와 척도 단위의 변환을 요구하며 이는 심적 노력 및 오류가능성을 증가시켜 이 입력요소의 효과를 감소시키게 된다. 반면, 입력요소와 합치되는 산출요구가 있을 때 이 산출요구는 합치되는 입력요소를 점화시키고 부가적인 심적 변환을 요구하지 않아 이 요소의 이용가능성을 증가시키게 된다.

Schkade와 Johnson(1989)은 안전한 내기(p-ber: 딸 확률이 높은 대신 당첨금이 낮음)와 투기성 내기(\$-ber: 딸 확률은 낮지만 당첨금이 많음)의 선택과 판단, 그리고 두 가지 판단(가격평가, 매력 평정)의 심리적 과정을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들의 실험에서는 컴퓨터 화면에 두 개의 속성정보(확률과 금액)을 지닌 도박을 제시하고 이 도박을 다른 사람에게 최소한 얼마면 팔겠느냐고(minimum selling price) 물어 그 가격을 화면상에 가격 눈금이 매겨져 있는 척도(수평막대)에 마우스를 조정하고 클릭하여 평정하게 하였다. 피험자들은 수평막대로 된 가격척도에 도박의 최소판매가격을 평정할 때 막대 척도 위에 마우스의 포인터를 올려놓고 약간의 조정과정을 거친 후 최종평정(마우스 클릭)을 하였는데 이때 막대상에서 마우스 포인터의 출발점 위치, 조정의 정도, 최종평정치가 측정되며 제시된 정보의 탐색시간과 탐색 빈도 등의 자료가 수집된다. 이 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 피험자들은 확률과 금액 정보 중 반응척도(가격매김)와 합치되는 금액정보에 더 오래 주의를 두었고 더 많이 이 정보를 탐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피험자들은 가격척도상에 판단반응을 할 때 도박에 제시된 금액을 조정의 출발점(마우스 포인터를 최초로 갖다대는 수평막대의 위치)으로 삼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즉, 반응척도와 합치되는 속성값을 시초 기준값(anchor)으로 사용하고 다른 속성값(확률)을 참고로 시초 기준값을 좌우로 조정하였다.

Slovic 등(1990)은 회사의 순익판단과 순위판단간, 학생의 평점과 석차판단간을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1987년 미국의 100대 기업 중

12개사를 뽑아 이들 회사의 전년도 총주식가격(10억달러 단위)과 순익순위를 제시해주고 올해의 총주식가격 또는 순익순위를 예측하게 하였다. 그 결과 총 주가 예측에서는 주가정보에, 순위예측에서는 순익순위에 더 큰 가중치가 부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반응척도와 합치되는 입력요소에 과도한 가중치가 주어졌다.

지금까지 선호 비밀관성 연구는 주로 두 개의 도박에 대한 선택과 판단에 관한 것이며 도박의 요소 중 확률이 보다 중요한 정보이고 당첨금이 덜 중요한 정보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선택에서는 확률에 중가중, 판단에서는 합치정보인 당첨금에 중가중이 이루어져 두 선호 유도 절차간의 비밀관성이 나타난다고 본다. 선택 상황에서 보다 중요한 속성에 과도한 가중치가 부여되거나 상쇄과정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는 비교적 일관되며 그 수효도 많다. 그러나 판단과정에서 합치성 효과에 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으며 이 효과의 크기를 확인하고자 하는 시도도 체계적이지 않다.

합치성 효과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우선 똑같이 중요한 속성정보를 제시하고 합치성 정보의 상대적 영향력이 비교되어야 하며, 합치성 효과의 제약범위가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즉, 판단상황에서 중요도가 비슷한 두 속성이 합치 여부에 따라 이용정도가 달라지는지와 전혀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판단척도와 합치시켜 봄으로써 합치성과 중요성이 대안판단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에서 사용한 단순한 도박 과제가 아닌 가상의 선발상황에서 두 가지 척도로 된 지원자의 점수(predictor)를 토대로 수행(criterion)을 예측하게 했을 때 수행을 예측하는 척도와 동일한 단위의 지원자 점수가 수행 예측에 더 영향을 주는지 아니면 예측점수-준거간의 관련성이 더 영향을 주는지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방 법

피험자

심리학 개론 수강생 319명이 판단과제를 수행하였다.

판단조건

판단조건은 모두 6조건으로 한 사람당 한 조건만을 판단하게 하였다. 조건들은 2가지 변수를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하나의 기준은 두 속성 정보가 모두 판단에 중요하나(중요조건) 아니면 둘 중 하나만 중요하나(혼합조건)이다. 중요조건은 경우 '적성과 사회성검사 점수 모두 준거(영업수행)와 상당히 관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내용의 지시문을 읽은 후 적성검사 점수와 사회성 검사 점수를 토대로 준거(영업수행)를 예측 판단하게 하였다. 혼합조건에서는 '사회성(또는 적성)은 준거와 상당히 관련되지만 영어시험점수는 준거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내용의 지시문을 읽은 후 사회성 검사와 영어시험점수를 토대로 준거를 예측 판단하게 하였다. 합치성은 속성정보와 준거와의 척도 동일성이다. 속성의 중요도와 합치성 조건을 조합한 6개의 판단조건은 표 1과 같다.

표 1. 판단조건

조 건	적성척도	사회성척도
1. 중요/모두 합치	100	100
2. 중요/관련 합치1	100	10
3. 중요/관련 합치2	10	100
사회성척도 영어점수		
4. 혼합/모두 합치	100	100
5. 혼합/관련 합치	100	10
6. 혼합/무관련합치	10	100

주) 준거판단척도는 모두 100점 척도인 경우이다. 준거 판단척도가 10점 척도일 경우 표에서 100은 10으로, 10은 100으로 바뀐다.

과제 및 절차

조건에 따라 제시되는 정보의 관련성을 기술한 지시문을 읽고 20명의 지원자에 대해 2가지 정보를 토대로 준거를 예측 판단하게 하였다. 제시된 두 속성정보간의

상관계수는 모두 0으로 되어 있다. 각 피험자는 20명의 지원자의 향후 예상되는 수행을 판단한 후(본 과제), 각 정보가 실제로 수행과 얼마나 관련된다고 생각하는지를 7점 척도에 평정(조작체크)하게 하였다. 과제의 예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 판단과제의 예(혼합/관련합치조건)

지원자	사회성 (100)	영어 (10)	수행예측 (100점만점)
A	80	8	()
B	70	6	()
C	60	8	()
:	:	:	:

표 3의 조작체크 결과, 적성-준거, 사회성-준거간의 관련성간에는 차이가 없었으며, $t_{(160)}=1.64, p=.104$, 사회성-준거의 관련성 평정이 영어-준거 관련성 평정보다 유의하게 더 높게 나타났다, $t_{(160)}=16.49, p=.001$.

표 3. 속성-준거 관련성의 평균

속성	평균	표준편차	t	p
적성	5.45	1.09	1.64	.104
사회성	5.24	1.02		
사회성	5.28	1.12	16.49	.001
영어	3.32	0.90		

표 4. 중요조건에서 합치성에 따른 입력정보의 영향력

	동일척도(55)		적성합치(52)		사회성합치(54)	
적성만 유의	8	14.55%	22	42.31%	15	27.78%
사회성만 유의	9	16.36%	11	21.15%	25	46.30%
모두 유의	34	61.82%	13	25.00%	11	20.37%
모두 유의하지 않음	4	7.27%	6	11.54%	3	5.56%

결 과

표 4와 표 5의 빈도와 퍼센트는 20명의 판단대상(지원자)에 대해 중요한 두 가지 속성 정보를 참고로 준거를 예측 판단하게 한 후 두 속성정보를 독립변수로, 예측 판단한 준거 점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각 피험자별로 따로따로 회귀분석을 한 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온 속성의 개수를 정리한 것이다. 그 결과, 두 속성 정보와 판단척도가 모두 합치될 때 두 속성 모두 유의하게 나온 비율이 61.82%로 가장 높게 나타나 예측 판단에 두 정보 모두 이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두 속성 정보 중 하나만이 판단척도와 합치되는 경우 합치되는 정보만 유의하게 나온 비율이 각각 42.31%(적성), 46.30%(사회성)로 나타난 반면, 불합치 정보만 유의하게 나온 비율은 각각 21.2%와 27.8%로 나타났다. 이는 판단 척도와 합치되는 정보에 더 많은 가중치가 부여되고 불합치되는 정보에 적은 가중치가 주어졌음을 의미한다.

표 5는 혼합조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온 속성의 빈도와 퍼센트 자료이다. 두 속성과 판단척도가 모두 합치될 경우 관련척도만 유의한 비율이 60.00%로 관련성의 영향이 강하고 관련척도만 합치될 경우 73.58%로 나타나 관련성에 합치성 효과가 추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척도가 동일한 통제조건에서 무관한 변수가 준거와 관련성을 보인(유의한 회귀계수의 수) 비율은 3.64%에 지나지 않았으나 무관한 변수만이 준거 척도가 합치될 경우 무관한 변수만이 유의한 비율이 34.0%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비록 준거와 관련이 없는 속성정보라고 할지라도 준거와 척도가 합치될 경우 그 자체가 시초값으로 설정(anchoring)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해 준다.

표 5. 혼합조건에서 합치성에 따른 입력정보의 영향력

	동일척도(55)		무관련합치(50)		관련합치(53)	
영어(무관련) 유의	2	3.64%	17	34.00%	3	5.66%
사회성(관련) 유의	33	60.00%	18	36.00%	39	73.58%
모두 유의	15	27.27%	13	26.00%	8	15.94%
모두 유의하지 않음	5	9.09%	2	4.00%	3	5.66%

논 의

가상의 선발 상황에서 두 가지 척도로 된 지원자의 점수(predictor)를 토대로 수행을 예측하게 했을 때 입력-반응 척도의 합치성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두 입력 정보 모두 판단에 중요한 정보일 때 두 입력 정보와 판단척도가 모두 합치되면 두 입력 정보 모두 판단에 이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느 하나의 입력정보와 판단척도가 합치될 경우 합치되는 정보가 예측 판단에 더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판단에 중요한 정보와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토대로 전반적인 판단을 할 경우 중요한 정보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준거와 무관한 입력 정보라고 하더라도 반응 척도와 동일할 경우 이 정보의 영향력이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반적인 판단과 어느 정도 관련되는 입력정보들을 토대로 예측 판단 또는 전반적인 평가를 할 경우 정보의 상대적 중요도뿐만 아니라 반응척도와와의 합치성에 의해서도 영향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해 준다.

Schkade와 Johnson(1989)의 연구에서 컴퓨터 화면에 판단척도를 제시했을 때 대개 조정의 시작점은 반응척도와 합치되는 속성정보의 값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다면 본 연구의 결과에서 시초 기준값 설정(anchoring)과 조정(adjustment)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합치정보가 판단의 시초값으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시초 기준값 설정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연구한 Wilson, Houston, Erling과 Brekke(1996)의 연구 결과, 판단 이전에 판단과제와 전혀 관련이 없는 임의의 숫자를 제시

해도 이 숫자가 시초 기준값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초기준값을 설정하는 것이 판단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사전 경고를 해 주거나 판단반응을 정확하게 할 경우 유인가를 제공하여 판단과제를 정확하게 수행하는 것에 대해 동기를 부여해 주어도 시초 기준값의 효과는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연구 결과는 판단에서 시초값의 효과를 쉽게 개선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여러 속성정보를 토대로 전반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그것도 척도의 눈금이 다를 경우 판단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 다음 두 가지 방법 사용이 권고된다. 그 하나는 합치성 효과를 줄이기 위해 모든 속성 척도의 눈금을 동일화한 연후에 전반적인 판단을 하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정보를 통합(전반적 판단)하는 과제를 일관성이 없는 인간에게 맡기기보다는 Lens 모형 등과 같은 적절한 수리적 의사결정 모형을 이용함으로써 판단의 비밀관성을 극복하는 방법이다(Goldberg, 1968). 특히 다양한 척도로 구성된 예측변수를 토대로 전반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인사선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인사선발 상황을 포함하여 현실의 판단상황에서는 본 연구의 상황보다는 많은 속성정보가 주어지는 경우가 많고 반응 척도와 합치되는 입력정보가 주어지는 경우와 주어지지 않는 경우 모두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가 일반화되려면 보다 복잡한 판단 상황에서 어떤 정보가 시초기준값(anchor)으로 설정되는지와 둘 이상의 정보를 토대로 한 조정 과정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증거가 수집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Goldberg, L.R.(1968). Simple models or simple processes? Some research on clinical judgments. *American Psychologist*, 23, 483-496.
- Grether, D.M., & Plott, C.R.(1979). Economic theory of choice and preference reversal phenomena. *American Economic Review*, September, 69, 623- 638.
- Montgomery, H.(1989a). From cognition to action: The search for dominance in decision making. In H. Montgomery, & O. Svenson(Eds.), *Process and structure in human decision making*. Chichester, UK:Wiley.
- Reilly, (1982). Preference reversal: Further evidence and some suggested modifications in experimental design. *American Economic Review*, 72, 576- 584.
- Schkade, D.A. & Johnson, E.J.(1989). Cognitive processes in preference reversal.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44, 203-231.
- Slovic, P., Griffin, D., Tversky, A.(1990). Compatibility effects in judgment and choice. In R.M. Hogarth(eds.), *Insights in decision making: A tribute to Hillel J. Einhor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lovic, P., Lichtenstein, S.(1971). Comparison of Bayesian and regression approaches to the study of information processing in judgment.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Performance*, 6, 649-744.
- Slovic, P., Lichtenstein, S.(1983). Preference reversals: A broader perspective. *American Economic Review*, 74, 596-605.
- Tversky, A., & Kahneman, D.(1986). Rational choice and the framing of decisions. *The Journal of Business*, 59(4), 251-278.
- Tversky, A., Sattath, S., & Slovic, P.(1988). Contingent weighting in judgment and choice. *Psychological Review*, 95, 371-384.
- Tversky, A., Slovic, P., & Kahneman, A.(1990). The causes of preference reversal. *American Economic Review*, March, 80, 204-217.
- Wilson, T. D., Houston, C. E., Erling, K. M., & Brekke, N.(1996). A new look at anchoring effects: Basic anchoring and its antecedent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125(4), 387-402.

1차 원고 접수: 2001. 2. 28.
최종 원고 접수: 2001. 5. 15.

Compatibility Effects in Predictive Judgments of Performance

Jong-Goo Lee
Taegu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hypothesis that the weight of a input attribute is enhanced by its compatibility with the response scale(mode). In each experimental condition, the weight of a input attribute in predictive judgments of performance was greater when it matches the response scale than when it does not. Some possible limits of the present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Preference reversal, Anchor, Compatibility